

Date: 21 Av 5786 (August 4, 2026)

Torah Portion: Re'eh

Topic: The Sword and the Scroll, Part 1 (칼과 두루마리, 제 1 부)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신명기 11 장 26 절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정독하지 않으면, 마치 모쉐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정반대되는 두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복과 저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토라의 말씀에는 이 선택을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정해주신 길들이 언젠가 당신의 백성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께서 토라의 계명들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먼 훗날까지 이르는 모든 세대들, 더 구체적으로는 매일매일이 똑같은 결단의 순간 앞에서 서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 선택하라고 주신 명령은 단순히 한 생애 가운데 번영과 역경이라는 둘 사이에서 하나를 골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음성에 순종함에 따라 놀람이 없고 질서 잡힌 순풍의 삶을 영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 및 자기 의지의 영에 지배 받는 불확실한 생존, 곧 역경과 사망으로 내닫는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밝히기 위해 미드라시는 모쉐의 말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과 연결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예레미야 13:13).

미드라시는 즉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백성이 정확히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선지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그저 "듣고 귀를 기울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둘째, 왜 교만에 대한 경고가 "들어라!" 명령과 나란히 수평적으로 놓여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불순종만이 문제가 되었다면 선지자께서는 "내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신해서 그는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해서 "오만함"이 "듣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성경은 제시하시는 것일까요?

미드라시는 이 두 질문에 대해 하나의 설명으로 답합니다.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쉐와 선지자를 택하여 기록하게 하신 토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토라에서 주신 말씀들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이 귀안의 청각 구조의 세포들을 통하여 소리의 운행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상의 뜻을 지닙니다. 성경 기록의 언어에서 '듣는 것'이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를 (첫째) 심장에 새겨 받아들이고, (둘째) 입술의 발성으로 순종하며, (셋째) 그 자신의 행위를 그 명령하신 - 말씀에 복종시키는 세 단계 모두가 하나의 명에가 됨을 뜻합니다. 이러한 성경 기록에서 "듣기"의 반대 말은 신체적 청각 장애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신성한 지혜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합니다. 스스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믿기에 깊은 가르침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 영혼의 마음의 발을 점령한오만의 영은 여호와와의 토라를 심령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곧, "엘로힘 악헤림"(אלהים אחרים) 다른 신(권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한 인생의 오만한 영이 외적인 행동을 넘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까지 이미 침투하여 지배하고 있음을 일깨웁니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한 이해만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는 여호와와의 계명에 순종하는 대신, 자신의 견해를 잣대 삼아 토라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명예, 부, 영향력,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불순한 의도와 야망이 인애와 정직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서서히 대체해 버립니다. 그런 마음으로도 토라를 읽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토라가 그 마음을 읽어내고 변화시키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겸비의 영이 사라졌기에 경청 또한 멈추게 됩니다.

마하르주(Maharzu)는 이 미드라시의 의미를 한층 더 확장해 설명합니다. 그는 이 경고가 단순히 토라를 공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토라를 공부하느냐에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의 순전한 의도가 아닌, 그 이외의 다른 목적을 둔 부적절한 태도로 토라에 접근하여 공부하는 자는 결국 그 배운 바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해력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신성한 지혜가 영구히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인들은 토라가 물과 같다고 거듭 가르칩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늘의 지혜 또한 겸비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구하는 사람에게 내재하시는 겸비의 영은 단지 그를 바람직한 한두 가지의 미덕을 행하는 정도에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 빛인 신성한 진리를 담은 그릇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이러한 이해는 히브리어 표현 '알-티그바후(אל תגבה)', 즉 문자 그대로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말에 새로운 생명 빛을 비취줍니다. 미드라시는 이 구절을 "오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하며,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오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것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라는 사무엘 상 2 장 3 절의 말씀과 연결 시킵니다. 교만은 무엇보다 먼저 말로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거나,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남을 경멸하는 말투로 말하는 사람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멈췄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종종 (왼쪽) 심장이 이미 품고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고 가르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경고를 마무리합니다. 예언서 전반에 걸쳐 이 구절의 표현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지닌 권위를 확증하는 데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문맥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는 곧 이 말씀의 표현에 또 다른 깊은 층의 뜻이 담겨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예레미야의 말이 지닌 권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앞선 시대의 예언자와 현인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진리를 다시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오래전부터 하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솔로몬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잠언 16:5)라고 선포했고, 이사야 또한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다시금 확인되는 핵심적 깨달음은, 여호와께서 그가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토라를 주신 원리- "귀로 들어라•심장에 새겨라•행위로 순종하라"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토라는 처음부터 겸비한 영의 사람을 축복으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